

메르스사태 재연되나 16번, 슈퍼 전파 우려

병원내 감염 가능성 높아
간병했던 딸도 확진 판정
방문 병원 접촉자 공개해야

국내 16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인 광주 4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기 전 7일동안 지역 의료기관을 출입했던 것으로 드러나 병원내 감염으로 수십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지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더구나 16번 환자의 딸인 18번째 환자가 광주의 한 병원에서 27일 같이 치료를 받은 적도 있어 방역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병원 내 감염은 호흡기질환에 취약한 환자와 이들을 접촉한 의료진 사이에 연속적으로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 환자와 보호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실제로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초기에 당국은 초기 병원과 환자 정보를 감추면서 오히려 더 확산이 되었고 치료를 위해 병원 응급실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186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이 중 38명이 사망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다행히 국내 의료환경과 준비태세는 메르스 사태를 거치며 감염관리시스템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사이 감염병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보다 발전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확진환자의 동선이나 접촉자 등 정보가 전혀

없어 시민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5일 광주시와 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16번 환자는 4일 전남대병원에서 확진을 받기 전까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광주시역 21세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1월 27일에는 전남대병원도 방문해 X-레이 검사 등을 받고 폐렴약을 처방받았다.

21세기병원에서는 주로 폐렴 진료 위주(폐질환 경험)로 치료를 받다가 폐렴이 악화되자 3일 전남대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고 이후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로 확진됐다. 이 과정에서 21세기병원 입원환자와 외래환자,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남대병원의 방사선과와 응급실의 진료라인과 같은 시간대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도 마찬가지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당시 21세기병원에 있었던 입원환자 83명과 의료진 68명에게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전남대병원 의료진에 대해서도 역학 조사와 함께 바이러스 감염 유무를 살피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팀과 광주시는 병원 CCTV를 분석하는 등 확진환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으나 아직 조사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복수의 병원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들을 담당했던 의료진과 같은 병원의 환자 등 지역사회의 감염 우려가 매우 높다"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동선과 근접 접촉자 등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경식 기자

교육부, 中후베이성 방문 대학생 등교중지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일명 우한 폐렴)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대학에 개강 연기를 권고했다.

교육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법무부 등과 범부처 유학생 지원단 확대 회의'를 가진 뒤, 이 같이 결정했다.

교육부는 전국 대학에 4주 이내 범위에서 개강을 연기하라고 권고했으며, 각 대학은 지역 상황과 중국인 유학생 수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개강 여부와 기간을 정한다.

교육부는 또 중국 후베이성(湖北省)을 방문한 유학생과 한국인 학생, 교직원 등에 대해 등교 중지 명령을 내리고 자율 격

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학생과 교직원은 입국 후 14일 동안 다중이용시설인 대학에 등교하면 안 된다. 각 대학은 이 같은 사실을 해당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등교 중지 명령에 따라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학생은 출석을 인정해주고, 교직원들도 별도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중국에서 입국하는 학생들은 특별입국절차에 따른 강화된 입국 심사로 입국 단계부터 관리하고, 입국 이후 14일 동안은 격리 지침을 잘 지키는지 수시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김민수 기자



목포 방문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현황 점검 및 지역 경제 실태 파악을 위해 5일 목포를 방문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목포연안여객선터미널 회의실에서 관내 중소 해운사 및 조선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전남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경제 피해 총력 대응

마스크 등 사재기 합동점검...소상공인·기업 지원 TF팀 운영

전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물가안정과 소상공인·기업지원 등 5개 분야의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적극 대응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국민 불안을 틈타 마스크, 손 소독제를 비롯한 각종 생필품 수요증가로 매점매점, 사재기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식약처 등과 합동점검에 나서며 등 소비자단체와 시·군별 물가 점검에 들어갔다.

특히 판매가격 표시 의무이행 및 담합 등 가격인상 행위를 집중 점검하며,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매점매점행위 신고센터(286-4170~1)에 신고하면 된다.

이와 함께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접수 및 피해 현황 등을 통합 관리하는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해당된 기업과 소상공인은 기업애로통합신고센터(전남중소기업진흥원 288-3833), 소상공인 애로통합신고센터(전남

신용보증재단, 729-0651), 수출기업 피해 신고센터(전남도 수출정보망, www.jexport.or.kr)로 신고·접수하면 된다.

이 밖에도 무안 국제공항 중국노선 운항 중단과 지역 축제·공연이 잇따라 취소되면서 관광·서비스 산업의 어려움도 예상되는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일자리 종합지원센터를 통한 고용위기관리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울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현황을 신고센터는 물론 시·군과 지역 경제단체, 협회 등을 통해 신속히 파악해 경영안정자금 등 재정적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안상현 전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비해 각 사업장에 대응지침을 전파하고 노동자의 건강관리 대책을 당부했다"며 "기업과 소상공인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허성은 기자

입춘한파 내일까지 계속...건강관리 유의해야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입춘한파'가 오는 7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6일까지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까지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것이라며 건강 관리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상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해 산불 등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해안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 안팎을 보이며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아 영하 4도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7일에도 아침에는 영하 7도까지 내려가는 추운 날씨가 계속되다가 낮쯤에 영상권(1도)을 회복할 전망이다.

최이슬 기자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 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 서러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권력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생존 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된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